



2012년 11월 19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98%가 재정절벽을 해결하라 말한다

• 경제분석

KIS 선행지수 상승, 경기 흐름 개선 조짐

• 이머징마켓 동향

주택과세, 은행부실 우려로 상해증시 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종목

• 기업분석

휠라코리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9(금)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4.41	1,900.87	1,889.70	1,894.04	1,870.72	1,860.83
	등락폭	-10.00	-3.54	-11.17	4.34	-23.32	-9.89
	등락종목	상승(상한)	362(4)	391(7)	214(4)	337(4)	241(5)
		하락(하한)	446(5)	436(4)	613(5)	482(9)	612(4)
	ADR	84.13	86.25	80.88	78.41	77.32	75.36
	이격도	10 일	99.64	99.41	98.87	99.19	98.11
		20 일	99.09	98.97	98.52	98.91	97.92
	투자심리	60	50	4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629	469	487	526	447	459
	거래대금 (십억 원)	4,745	3,735	3,859	4,699	4,137	3,988
코스닥	코스닥지수	519.90	521.43	513.80	503.24	493.84	482.99
	등락폭	0.86	1.53	-7.63	-10.56	-9.40	-10.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6(6)	452(9)	254(9)	273(5)	234(7)
		하락(하한)	469(5)	475(3)	700(2)	673(15)	711(9)
	ADR	81.63	85.88	81.91	78.64	78.70	74.44
	이격도	10 일	101.59	101.36	99.65	97.70	96.16
		20 일	100.62	100.99	99.68	97.86	96.23
	투자심리	90	100	9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406	409	473	464	462	465
	거래대금 (십억 원)	1,645	1,883	2,034	2,189	1,932	2,23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54.1	884.1	1,021.5	173.7	101.9	293.8	36.5	24.1	267.7	64.1
	매도	2,092.7	1,022.7	849.5	180.6	88.3	186.2	27.4	27.5	147.8	58.9
	순매수	-38.6	-138.6	172.0	-6.9	13.7	107.5	9.1	-3.4	120.0	5.2
	11 월 누계	347.9	-583.0	443.6	84.2	61.5	101.2	-14.0	50.1	516.7	-208.4
	12 년 누계	-10,729.3	13,094.9	2,499.0	1,667.9	2,624.0	-4,991.6	-35.2	467.8	2,757.2	-4,864.7
코스닥	매수	1,959.7	104.1	160.0	36.3	16.5	48.7	6.5	8.5	38.8	35.8
	매도	1,839.8	117.0	268.4	36.9	32.6	70.3	56.1	9.7	50.4	34.6
	순매수	120.0	-12.8	-108.4	-0.6	-16.2	-21.6	-49.7	-1.2	-11.6	1.3
	11 월 누계	157.7	-96.7	29.8	45.3	-25.1	65.5	-73.2	6.4	18.8	-90.9
	12 년 누계	1,250.4	17.8	-462.9	97.6	55.9	-548.9	-268.5	-32.0	240.5	-805.3

98%가 재정절벽을 해결하라 말한다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8.8배
12MF PBR	0.99배
Yield Gap	8.5%P

- ▶ 11월 16일 오바마 대통령, 의회지도부 회담결과 : 긍정적, 연내 합의 노력
- ▶ 11월 6일 캘리포니아주 부자 증세안 주민투표 통과 : 부자 증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2013년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은 바닥권에 놓인 KOSPI에 긍정적

미국 연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증세
불가피한 상황

■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연내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실상 세원이 개인소득세, 급여세에 한정되어 있다. 미국 연방세에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급여세(payroll tax)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로 절대적이다. 한국의 부가세(VAT)와 유사한 소비세는 미국 연방세가 아니라 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급여세 등 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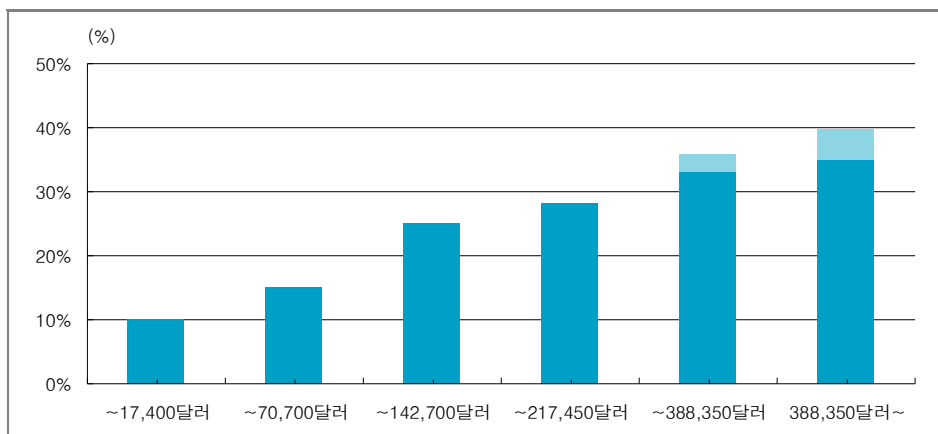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계 증세(이하 부자 증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소득세율 상위 2개 구간을 35%에서 36%,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 1〉 가계소득별 개인소득세율 현황과 민주당, 공화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단위: %)

가계소득 구분	현행	민주당 오바마 공약	공화당 롬니 공약
0~17,400달러	10%	10%	8%
17,400~70,700달러	15%	15%	12%
70,700~142,700달러	25%	25%	20%
142,700~217,450달러	28%	28%	22%
217,450~388,350달러	33%	36%	26%
388,350달러 초과	35%	39.60%	28%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오바마의 개인소득세 증세안



자료: 한국투자증권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증세
-민주당 찬성
-공화당 반대

오바마 대통령은 가계소득 상위 2%에 대해 감세 연장을 종료함으로써 나머지 98%가 세금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상위 2%의 340억 달러 감세 연장을 위해 나머지 98%의 2,880억 달러 감세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도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여타주에 비해 빠르게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증가하면서 공화당 지지주에서 민주당 지지주로 바뀌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6일 주민 투표에서 부자 증세안이 54%로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3년 1월부터 7년간 10.3%에서 13.3%로 인상되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를 반대한다. 오바마 케어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자 증세까지 실시한다면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업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16일 의회지도부 회담
- 양당간 합의 가능성 부각

다만 11월 16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베이너 하원의장 회담에서 재절절벽을 회피할 의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당간 부자 증세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음에도 양당간 합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을 재정절벽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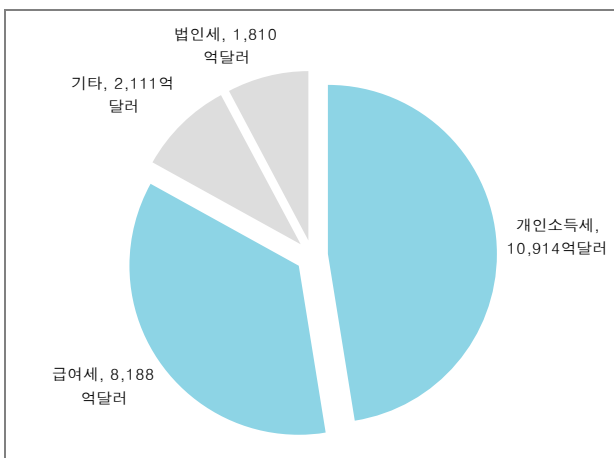
〈표 2〉 재정절벽 회피에 따른 미국 재정적자 증가분 추정치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	2014
예산통제법안에 따른 국방지출 축소	24	51
예산통제법안에 따른 비국방지출 축소, 메디케어비용 축소	40	61
감세 연장 및 최저한세 인플레이션 조정	330	420
-감세 연장 및 최저한세 인플레이션 조정(부자 제외)	288	382
급여세 2%p 감면, 실업수당 연장	108	150
총계	503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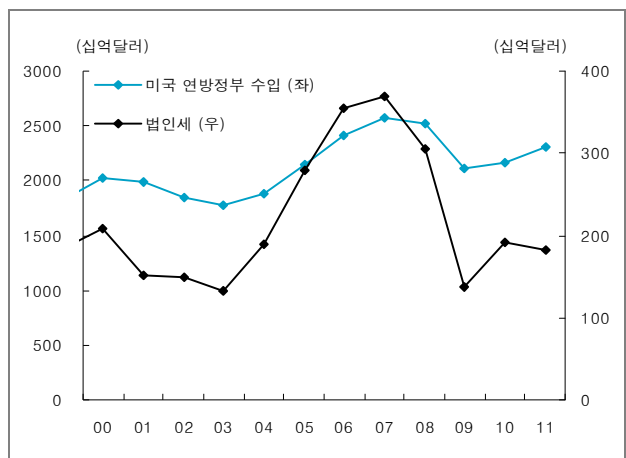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011 회계연도 미국 연방수입 구성비율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연방정부 수입과 법인세 추이(00~11)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양당간 부자 증세에 대한 이견은 일부 양보를 통해서 해소될 전망이다. 공화당도 부유한 상위 2%의 가계 감세 연장을 위해서 나머지 98%의 가계의 감세 종료를 방관할 수 있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원안인 39.6%보다 낮은 37%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재정절벽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미국 재정절벽 회피 -2013년 2.9% 성장

11월 8일 CBO 리포트에 따르면 양당간 합의를 통해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한다면 2013년 GDP 성장률은 -0.5%가 아닌 2.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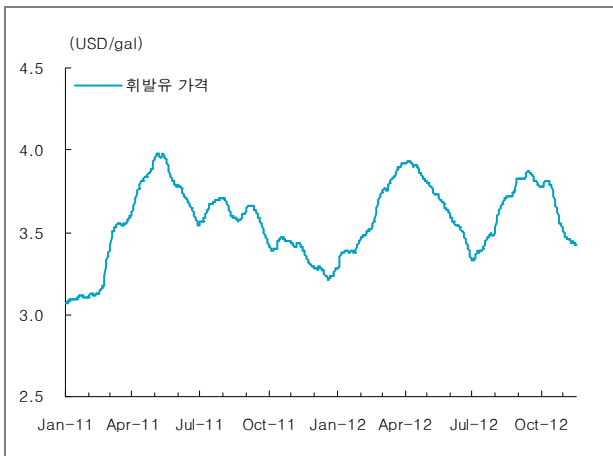
그러나 CBO는 재정절벽 회피 이후에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으로 재정부채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정부채 부담이 점점 커져 더이상 감세를 연장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변화가 GDP 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기적인 감세는 중장기적인 GDP 성장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절벽 이슈의 영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잠재성장율, 효율성 개선, 자본, 노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미국 소비를 좌우하는 변수: 휘발유 가격, 주택경기

금주에 예정된 11월 23일 블랙프라이데이, 26일 사이버먼데이는 미국 소매경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록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10월 소매판매는 4개월만에 전월비 마이너스(-0.3%)를 기록했지만 미국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미국 기업은 재정절벽 이슈로 투자를 자제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는 안정된 에너지 가격과 주택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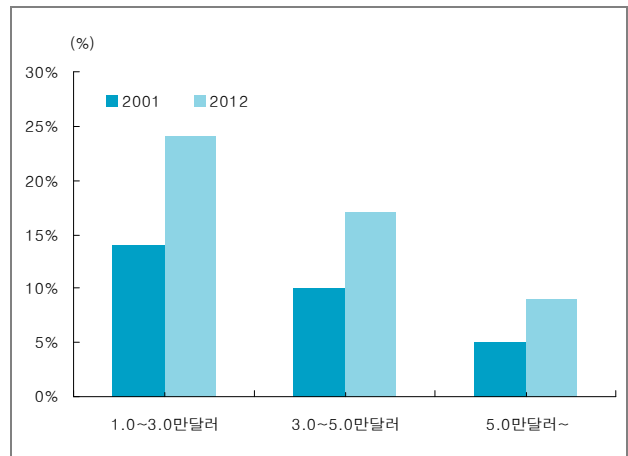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에너지가격 안정에 힘입어 소비를 늘리고 있다. 저소득층의 세후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가격에 민감하다. 세후소득 3만 달러 이하에서는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한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이 하락하면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늘어난다. 최근 셰일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난방유 가격 하락, 드라이빙 시즌 종료, 중국 등 글로벌 원자재수요 감소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안정되면서 미국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그림 4] 미국 휘발유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 가계 세후소득별 에너지비용 비중



자료: ACCCE, 한국투자증권

<표 3> 2011년 가계소득별 가계수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가계수	구성비중
총 가구수	114,991,725	100.0
1.0만달러 이하	9,004,208	7.8
1.0~1.5만달러	6,678,477	5.8
1.5~2.5만달러	13,137,384	11.4
2.5~3.5만달러	12,153,825	10.6
3.5~5.0만달러	15,933,833	13.9
5.0~7.5만달러	20,697,584	18.0
7.5~10.0만달러	13,503,035	11.7
10.0~15.0만달러	13,864,597	12.1
15.0~20.0만달러	5,110,706	4.4
20.0만달러 이상	4,908,076	4.3

자료: US census, 한국투자증권

최근 레나 등 미국 주택건설업체, 아마존 등 소매업체 주가 조정으로 인해 미국 주택 경기, 소매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연준 모두 주택경기를 위한 정책 실시에 긍정적인 만큼 주택경기 회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S&P500과 주택건설업체지수 주봉

S&P500보다
주택건설업체지수의
단기낙폭이 큰 상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11/12	미국	이베이, 중국의 해외쇼핑 대행업체 '시우닷컴'과 손잡고 중국시장 재진입 예정
11/12	미국	주택건설업체 D.R Horton 2013년 부진한 고용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표명, 주택건설업지수 4.6% 하락
11/12	미국	애플, 아이폰5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5S'를 2013년 봄 출시 예정이라고 대만언론 보도
11/12	미국	대만 디지타임즈 보도, MS 서피스 태블릿의 판매량이 예측치의 60%에 그칠 전망, 윈도우8 효과 작아
11/13	EU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가 20일 긴급 회담으로 연기됨, 재정긴축목표 일부완화될 전망
11/13	한국	날씨효과로 고마진 겨울상품 매출 증가, 현대백화점 등 유통주 강세
11/13	한국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철수 결정, 운용규모 주식 9,171억원, 채권 3조9,316억원 등 총 4조8,572억원임
11/13	중국	중국 10월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승인 규모 28억달러, 사상최고치, GIC, 테마섹 등 9개기관 QFII 승인
11/13	독일	ZEW 11월 경기기대지수 -15.7, 예상치 -10, 10월 -11.5 하회, 독일 경기둔화 우려 높아짐
11/13	그리스	그리스 단기국채 입찰 40.6억 유로 발행 성공, 16일 50억 유로 국제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
11/13	그리스	EU, IMF는 그리스 구제금융 313억유로 지원예정, 독일정부는 3~4분기 83억 유로 추가지원을 제안했다고 보도됨
11/13	미국	허리케인 샌디, 유럽경제침체 등으로 미국 주간 원유재고 증가 예상, IEA는 4분기 원유수요 예상치 하회 전망
11/13	미국	구글, 넥서스4, 넥서스10 출시, LG전자가 제조한 넥서스4 판매호조로 스마트폰 점유율 증가 전망
11/14	한국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13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완공시점을 2014년으로 연기한다는 보도를 부인
11/14	한국	D램익스체인지, 11월 상반기 DDR3 2Gb 고정거래가격 0.83달러, 전달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세 멈춤
11/14	한국	KT, 홍콩지역 LTE 자동로밍 서비스 제공, LTE사업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1.8GHz 주파수 대역의 강점을 활용
11/14	중국	시진핑 국가 부주석, 리커창 부총리,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 중국 지도부 교체
11/14	한국	인터파크, 자사주 612억원 매각, 재무구조 개선, 유통물량 증가 효과를 기대
11/14	한국	에스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515억원, 117억원, 72%, 70% YoY, 그러나 예상치 영업이익 204억 하회
11/14	한국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 중단, '안철수 양보론' '조직적 세(勢)몰이' 등을 비판함
11/14	EU	유럽 23개국에서는 40여개 노동조합이 건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총파업
11/14	EU	렌 EU 집행위원, 스페인 재정긴축 긍정적, 12년 재정적자 8%, 13년 6% 목표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예정
11/14	미국	오바마 대통령,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 다만 25만 달러 미만은 감세 연장
11/14	미국	10월 FOMC 의사록, 연말 OT 종료 이후 QE3 확대 방안과 QE3 지속 조건 구체화 검토
11/14	미국	10월 소매판매 -0.3% MoM, 9월의 1.3%, 예상치 -0.2% 하회, 4개월만에 처음 소매판매 감소
11/14	미국	10월 PPI -0.2% MoM, 난방연료 -3.3%, 휘발유 -2.2%, 승용차 -1.6%, 경기둔화로 물가하락
11/14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령관의 사망, 테러 우려 높아짐
11/15	한국	JYP엔터테인먼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에 60억원 BW와 6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예정
11/15	한국	싸이의 '강남스타일', 메인차트인 Hot 100에서 2위에서 5위로 하락, 7주 연속 2위 기록
11/15	일본	노다 총리, 16일 중의원 해산 예정, 12월 16일 총선을 실시할 계획, 야당인 자민당 집권시 엔화 약세 전망
11/15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 후진타오로부터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이양받음, 차기지도자로서 위상 정립
11/15	이스라엘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전일 자바리 사령관 사망에 따른 보복공격 단행, 텔아비브에 200발이 넘는 로켓포 발사
11/15	EU	유로존 GDP 성장률 3분기 -0.1%, 2분기 -0.2% 상회, 스페인, 이태리 마이너스 성장 두드러져
11/15	영국	10월 소매판매 -0.8% MoM, 예상치 -0.1% 상회, 영국 경제는 성장을 둔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높아짐
11/15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11월 -10.7, 10월 5.7, 예상치 2 하회, 제조업 경기 악화
11/15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3.9만건, 40만건 상회,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통계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
11/16	한국	SK컴즈, SK컴즈 조직개편 등 변화로 인해 SK플래닛과의 합병설 부인함
11/16	한국	SK하이닉스, 11월 상반기 NAND 가격 하락 반전, 채권단 물량(외환은행, 3.5%) 오버행 우려로 하락
11/16	한국	기아차, 단기급락에 따른 반등 6.01% 상승, 연금 등 기관 저가매수
11/16	일본	11월 중의원 해산, 12월 총선 기대감으로 니케이 2.2% 상승, 자민당 집권시 인플레이션 목표 1%에서 3%로 상향
11/16	한국	에스엠, 위메이드, 태광 등 코스닥기업 실적 발표 예상치 하회로 코스닥 2.2% 급락
11/16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지도부 재정절벽 협상 검토, 크리스마스 이전 합의 도출할 계획임
11/16	미국	10월 산업생산 -0.4% MoM, 0.2% 예상치 하회, 제조업 생산 -0.9%, 허리케인 샌디 등 악영향
11/16	미국	페이스북, 11월 14일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4일간 20% 급등, 애플 9개월 최저치에서 0.39% 반등
11/16	미국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애플, HTC의 특허 협상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청
11/18	한국	민주당 문재인 후보,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측에 일임, 여론조사, 배심원, 참여경선 등 단일화방식 수용할 예정

KIS 선행지수 상승, 경기 흐름 개선 조짐

- ▶ KIS 경기선행지수로 본 국내 경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임
- ▶ 수출, 소비, 설비투자 등에서 긍정적 흐름 예상
- ▶ 물가 안정 기조 지속될 전망이지만, 기업이익 모멘텀은 취약한 상황

■ 경기 흐름 개선 조짐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 전환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구조라는 것은 중국이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여타 이머징 국가들은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이룬다. 이런 구조에서는 중국의 수출 확대가 중요하다. 중국의 수출이 확대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머징에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을 늘림으로써 세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9월과 10월의 중국 수출 실적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9%와 11.6% 증가한 것은 단기 경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여타 국가들의 수출 경기가 뒤따라 개선될 것임을 예고하는 징후다. 한국의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것은 중국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선행지수는 경기 호전을 예고, 물가 안정 기조 지속 예상

KIS 경기선행지수는 8월까지 부정적 흐름이 이어졌으나, 9월부터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지수의 표준화 증가율을 보면 수출은 8월부터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소비는 9월부터 개선됐다. 건설투자는 아직 개선 가능성을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9월에 강한 상승 압력을 예고했던 물가선행지수는 10월 들어 다시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잠시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업이익 선행지수는 다시 약화되고 있다. 물가는 안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익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KIS 선행지수 전월 대비 증가율의 Z-score

	5	6	7	8	9	10	평가	전월 대비
종합경기	-0.3	-0.2	-0.3	-0.7	0.7	0.2	경기 반등 가능성 증가	상향
건설투자	-0.2	0.0	-0.8	-0.2	-0.8	0.1	국내 건설투자 부진 지속 예상	동일
설비투자	-1.0	-0.7	1.0	-1.5	0.7	0.3	소폭 개선 가능성	동일
소비	0.1	-0.2	0.1	-0.3	0.2	0.1	소비 개선 가능성	상향
수출	-0.2	-0.9	-1.8	0.2	1.3	0.2	수출 여건 개선 가능성	상향
물가	-1.0	-1.6	-0.7	0.0	0.9	-0.2	약한 정도의 물가 하락 압력	동일
기업이익	0.0	-0.5	-1.4	-0.7	0.3	-0.5	기업 이익 감소 압력 상존	동일

자료: 한국투자증권

주: 표준화(평균을 차감한 후 표준편차로 나눈 값)된 수치임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주택과세, 은행부실 우려로 상해증시 하락

- ▶ 중국, 10월 외국환평형기금 216억 위안, 2개월째 증가세(9월 1,307억 위안)
- ▶ 중국 재정부, 2013년부터 배당소득세에 대해 주식보유 기간별로 5~20% 세율 차별 적용
- ▶ 중국,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시범지역 확대 전망

상해증시 하락 마감
가전, 신에너지, 석탄 등
하락세 주도
유틸리티, 정유 등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내렸다. 장 중 1% 이상 하락해 2,000p 근처까지 떨어졌으나 마감 직전 낙폭을 축소했다. 거래금액은 368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연내 부동산 보유세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돼 악재로 작용했다. 은행권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와 연말 IPO 및 증자 물량 확대 가능성,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부담도 하락요인이었다. 중국 발개위가 정제유 가격을 인하했으나 호재가 되지 못했고 정유주는 큰 폭 하락했다. 가전 하향 정책이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도 약세였다. 입업(-3.6%), 신에너지(-1.8%), 석탄(-1.7%), 음식료(-1.5%), 출판(-1.3%), 비철금속(-1.1%), 제약(-1.1%), 섬유/의류(-1.0%), IT소프트웨어(-1.0%), 여행(-0.9%), 자동차(-0.9%), 항공(-0.8%), 가전(-0.8%), 철강(-0.8%), 건설(-0.7%)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유틸리티, 석유/천연가스, 부동산업종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소폭 반등해 A주 시장과 차별화됐다. 중국 18대 당 대회 폐막 이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지만 위안화 강세에 따른 자금유입은 지속됐다. 미국 대선 종료로 정치적 압력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해 해외자금 추가 유입에 대한 전망이 강화됐다. 최근 공개된 미국 FOMC 회의록에서 QE3 국채매입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중국 내수 정제유 가격 인하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철도건설, 은행주가 강세를 이끌었다. 반면 정제마진 축소 우려로 정유주가 내렸고 보험, 광업 및 시멘트 관련주도 하락했다.

홍콩H지수 반등
자동차주 큰 폭 상승
정유, 보험, 광업 등 약세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16(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14.73	-0.77	-2.63	-2.62	-8.40
홍콩 H	10,242.70	0.42	-2.03	-3.21	3.08
인도 SENSEX	18,546.61	0.41	-1.88	0.22	20.00
러시아 RTS	1,377.10	-0.32	-1.49	-3.97	-0.35
브라질 보베스파	56,279.36	-2.10	-3.82	-1.38	-0.84
베트남 VN	385.71	-0.31	-0.26	-0.70	9.72
MSCI 이머징마켓	974.33	-0.64	-1.68	-2.11	6.32

주: 1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기관의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며 코스닥 급락세

- 재정절벽 협상을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경제지표 소식이 더해지며 미국증시가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도 1,870P선을 이탈하며 출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장중 1,850P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연기금과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축소 1,860P선을 지켜내며 마감. 나흘 연속 급락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2% 넘게 급락하며 480P선에 안착. 글로벌 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해 온 기관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며 불안한 장세가 연출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된 IT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돋보임.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SK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 증가로 2013년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에 신고가를 경신. 한편,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대규모 실망 매물이 출회된 에스엠은 3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신규 상장한 맥스론텍은 공모가를 상회하는 시초가가 부담으로 작용, 차익실현 매물 출회,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현대위아(011210) ▶169,000(+2.42%)	그룹내 역할 확대에 따른 성장성 지속 전망에 강세 - 현대차그룹으로의 수주는 향후에도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OE 등 고객처 확대에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기아차로부터 매입한 서산 공장은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등속 조인트 및 변속기 관련 수주를 이미 받아놓고 있어 2014년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SK브로드밴드(033630) ▶4,880(+6.78%)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IPTV 가입자 증가로 2013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동시에 기업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며 신고가 경신 - IPTV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SK그룹 미디어 사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모바일과 기존 유선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해지율 및 SAC 하락 등의 시너지 효과 기대
에스엠(041510) ▶42,600(하한가)	3분기 어닝쇼크 여파로 사흘 연속 하한가 -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117억원 정도를 기록,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침에 따라 기관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사흘 연속 하한가 - 실적 모멘텀이 회석되며 주가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연이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투자심리를 악화시킴
맥스론텍(141070) ▶9,100(하한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신규 상장 첫날 하한가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서, 공모가를 상회하는 시초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하한가 - 신규사업으로 로봇과 IT 융합기술의 첨단제품인 병렬역학로봇(PKM)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5억원, 32억원을 기록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엠케이전자 (033160)	4,170 (-0.4)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3,550 (-6.2)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27,700 (-3.0)	28,550 (10/19)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51,900 (-7.3)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55,000 (-6.9)	274,000 (10/10)	- 한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녹십자 (006280)	150,000 (-3.2)	155,000 (9/25)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바이오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 모색 - IVIG(면역결핍치료제) 및 그린진-F(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3상 진입, 태국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GC China(홀딩스 자회사)을 통한 적수출 확대 등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이엔씨 (065570)	7,130 (-1.5)	7,240 (11/07)	46	11	9	1,023	7.0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07,000 (+0.6)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8.6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44,000 (-6.2)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1.4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위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85,000 (+2.2)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0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임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씨유메디칼 (115480)	12,450 (-15.3)	14,700 (9/20)	28	8	7	1,164	10.7
-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에 해외법인을 신설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반인용 심장충격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수출 본격화 예상 - AED 구비 의무화 대상 확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295,000 (-9.5)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3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관,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힐라코리아(081660)

매수(유지)

목표가: 76,000원(하향)

종가(11/15): 67,300원

주력 사업 회복 확인이 선결, 지분법이익 기대치도 낮춰야

■ What's new : 부진한 3분기 실적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1,446억원을, 영업이익은 30% 감소한 172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큰폭으로 하회했다. 3Q11에 발생한 Integrix 재고매출 191억원을 제외해도 매출액은 13% 감소했다. 부문별로 힐라코리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7%, 7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3.3%), 힐라 USA 달러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 4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 4.3%). 로열티수입은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지분법 대상 Acushnet 매출액은 7% 성장하고 비수기인 3분기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지분법이익 180억원과 외화관련이익이 발생하면서 세전이익은 390억원을 기록, 3Q11 적자에서 큰 폭 개선되었다.

■ Positives : 2013년 실적 개선 기대

2013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 내수 경기 완만한 회복에 힘입은 힐라코리아 실적 개선, 미국 소비 경기 회복에 기대하는 힐라 USA 매출 회복, 일본 로열티 베이스 상승에 힘입은 로열티 수입 증가가 그 요인이다. 2013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10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분법이익도 Acushnet 실적 개선과 지분을 확대해 금년 47억원에서 2013년 102억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세전이익은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 숫자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지분법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어야

3분기 실적은 내용상 크게 부진하다. Acushnet 지분법 호조는 3분기 순이익은 318만 달러에 그쳤으나 Alexandria Holdings (Acushnet 지분율 100%)에서 부채평가이익이 약 360억원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오히려 Acushnet 임직원들에 대한 Incentive plan 충당금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Acushnet 자체 목표 매출 달성시 2016년 총 1.6억 달러의 Incentive plan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4년 동안 연 4,000만 달러씩 충당금을 설정할 것이다. Acushnet에 대한 영업이익률 가정을 하향해 2013년 지분법이익은 2013년 당초 추정 183억원에서 102억원으로 하향한다.

■ 결론: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 턴어라운드는 2분기에 가시화

3분기 부진과 지분법이익을 하향, 2013년 순이익을 15%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88,000원에서 76,000원 (2013년 PER 11배)으로 하향한다. 주력 사업 둔화폭이 크고 자회사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주가 모멘텀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힐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과 유럽 라이선스 변경으로 인한 로열티 확대 가능성, Acushnet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류 사업 런칭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3Q12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6.4	144.6	(7.5)	160.3	(16.1)	(21.8)	722.2	741.4
영업이익	22.6	17.2	(23.9)	21.6	(35.6)	(30.2)	110.7	112.5
영업이익률(%)	14.5	11.9	(2.6)	13.5	(3.6)	(1.9)	15.3	15.2
세전이익	22.6	39.1	73.0	24.6	(29.2)	흑전	107.4	150.0
순이익	17.2	32.3	87.8	18.5	(18.6)	흑전	81.6	112.9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매수(유지)

목표가: 95,000원(유지)

종가 (11/15): 59,700원

실적 개선과 아티스트 활동 모멘텀 지속

■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적 계속될 전망, 매수의견 유지

와이지의 주가는 11월초 대비 20.7% 하락했다. 에스엠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실적 가시성 저하 우려로 와이지도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1) 와이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2) 이하이, 싸이, 2NE1, 빅뱅 등이 12년 말부터 13년 초까지 새로운 음반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3) 13년 상반기에 신규 걸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고, 4) 12년 12월~13년 1월에 빅뱅의 일본 돔 콘서트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활동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활동 증가를 바탕으로 13년 매출액,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43.6%, 99.7% 늘어날 전망이다기 때문에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23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11월 26일부터 보호예수 물량 출현돼 우리사주 40만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이지만 거래량을 고려할 때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분기 실적

와이지의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00억원, 7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1%, 132% 증가했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1) 음반, 음원 매출액이 각각 262%, 83% 늘었고, 2) 싸이 및 2NE1의 국내 콘서트 개최, 빅뱅 및 2NE1의 월드투어가 반영돼 콘서트 매출액이 198% 증가했으며, 3) 일본에서 빅뱅의 콘서트(15만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음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GD의 솔로 앨범, 싸이 6집 앨범 등의 판매 호조로 음반이 27만장(가온차트 기준) 팔려 전년동기 4만장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월드투어 관련된 제작비 증가 등으로 시장 컨센서스(85억원)를 소폭 하회했으나 회사 가이던스(60억~70억)보다는 높았다. 12년 분기별 영업이익은 계단식으로 높아지고 있다. 4분기에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368억원, 93억원으로 개선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성 여전히 높아

와이지의 13년 실적 증가 폭은 에스엠보다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빅뱅, 2NE1의 월드투어, 싸이의 미국 진출 등 12년부터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아티스트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3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3.6%, 99.7% 늘어날 전망이다. 13년 일본에서의 음반 판매량은 12년 45만장에서 13년 62만장으로, 공연 관람객수는 12년 60만명에서 13년 7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빅뱅, 2NE1의 월드투어가 계속되고 싸이의 글로벌 음반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으로 일본 외 활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3년부터 제일모직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패션사업 진출을 포함한 부가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품 판매 및 매니지먼트 수익도 추가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58	14	14	10	2,578	0.0	15	NA	NA	NA	45.6
2011A	78	17	18	13	3,322	28.9	20	11.1	15.2	2.4	26.5
2012F	109	26	33	27	2,469	(25.7)	32	24.2	17.2	6.0	29.7
2013F	157	53	57	46	4,188	69.6	60	14.3	8.6	4.1	36.3
2014F	183	69	76	59	5,401	29.0	78	11.1	6.2	2.9	33.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9(금)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4.41	1,900.87	1,889.70	1,894.04	1,870.72	1,860.83
	등락폭	-10.00	-3.54	-11.17	4.34	-23.32	-9.89
	등락종목						
	상승(상한)	362(4)	391(7)	214(4)	337(4)	230(6)	241(5)
	하락(하한)	446(5)	436(4)	613(5)	482(9)	612(4)	585(2)
	ADR	84.13	86.25	80.88	78.41	77.32	75.36
	이격도						
	10 일	99.64	99.41	98.87	99.19	98.11	97.89
	20 일	99.09	98.97	98.52	98.91	97.92	97.61
	투자심리	60	50	40	40	40	3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629	469	487	526	447	459
	거래대금 (십억 원)	4,745	3,735	3,859	4,699	4,137	3,988
	코스닥지수	519.90	521.43	513.80	503.24	493.84	482.99
	등락폭	0.86	1.53	-7.63	-10.56	-9.40	-10.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6(6)	452(9)	254(9)	273(5)	234(7)	218(6)
	하락(하한)	469(5)	475(3)	700(2)	673(15)	711(9)	735(9)
	ADR	81.63	85.88	81.91	78.64	78.70	74.44
	이격도						
	10 일	101.59	101.36	99.65	97.70	96.16	94.60
	20 일	100.62	100.99	99.68	97.86	96.23	94.44
	투자심리	90	100	9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406	409	473	464	462	465
	거래대금 (십억 원)	1,645	1,883	2,034	2,189	1,932	2,23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 증권	매수	2,054.1	884.1	1,021.5	173.7	101.9	293.8	36.5	24.1	267.7	64.1		
	매도	2,092.7	1,022.7	849.5	180.6	88.3	186.2	27.4	27.5	147.8	58.9		
	순매수	-38.6	-138.6	172.0	-6.9	13.7	107.5	9.1	-3.4	120.0	5.2		
	11 월 누계	347.9	-583.0	443.6	84.2	61.5	101.2	-14.0	50.1	516.7	-208.4		
	12 년 누계	-10,729.3	13,094.9	2,499.0	1,667.9	2,624.0	-4,991.6	-35.2	467.8	2,757.2	-4,864.7		
코스 닥	매수	1,959.7	104.1	160.0	36.3	16.5	48.7	6.5	8.5	38.8	35.8		
	매도	1,839.8	117.0	268.4	36.9	32.6	70.3	56.1	9.7	50.4	34.6		
	순매수	120.0	-12.8	-108.4	-0.6	-16.2	-21.6	-49.7	-1.2	-11.6	1.3		
	11 월 누계	157.7	-96.7	29.8	45.3	-25.1	65.5	-73.2	6.4	18.8	-90.9		
	12 년 누계	1,250.4	17.8	-462.9	97.6	55.9	-548.9	-268.5	-32.0	240.5	-805.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60,423	운수창고	-3,937	운수장비	38,195	건설업	-4,860
전기,전자	27,706	기계	-1,493	화학	23,902	은행	-2,154
통신업	14,205	금융업	-982	전기,전자	12,271	기계	-1,999
삼성전자	33,055	SK하이닉스	-17,817	삼성전자	17,321	SK하이닉스	-17,283
기아차	28,356	GS	-7,117	기아차	15,918	GS건설	-6,370
현대차	21,997	삼성물산	-4,461	현대차	8,425	대림산업	-2,742
삼성전기	9,293	대한항공	-4,380	현대모비스	7,861	CJ	-2,703
KT	7,876	삼성카드	-3,339	LG전자	7,730	SK이노베이션	-2,25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20	전기,전자	-2,409	운수장비	8,979	증권	-2,725
통신업	489	철강및금속	-1,927	철강및금속	3,511	금융업	-2,568
보험	312	금융업	-789	서비스업	3,249	전기,전자	-1,957
KODEX 레버리지	1,472	삼성전기	-3,407	현대차	7,342	SK하이닉스	-5,915
삼성전자	930	POSCO	-2,243	TIGER 200	7,331	LG디스플레이	-2,182
KODEX 200	881	엔씨소프트	-929	KODEX 200	6,776	현대차2우B	-2,028
현대제철	746	호남석유	-880	아리랑 200	5,109	롯데쇼핑	-1,877
삼성테크윈	719	하나금융지주	-835	삼성전자	4,108	대우증권	-1,54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03,961	기계	-6,146	통신업	8,581	전기,전자	-80,821
화학	22,947	금융업	-4,530	증권	7,042	화학	-14,651
전기,전자	18,922	유통업	-3,937	전기가스업	4,963	운수장비	-12,601
기아차	43,479	SK하이닉스	-35,031	SK하이닉스	14,279	삼성전자	-106,487
삼성전자	37,334	KODEX 레버리지	-27,192	KT	12,294	KODEX 200	-21,599
현대차	34,664	삼성물산	-8,411	엔씨소프트	11,993	LG전자	-13,832
KODEX 200	16,416	GS	-7,646	삼성SDI	11,757	현대차	-10,450
LG전자	12,723	대한항공	-6,278	기아차	10,130	현대모비스	-8,939
현대모비스	12,058	SK이노베이션	-5,991	GS	9,914	KODEX 레버리지	-8,349
현대위아	10,228	POSCO	-5,918	삼성전자우	7,729	SK텔레콤	-7,424
NHN	10,207	엔씨소프트	-5,860	삼성전기	5,675	LG화학	-6,719
삼성전기	7,635	삼성카드	-5,080	한국전력	4,674	강원랜드	-6,297
SK텔레콤	7,165	GS건설	-4,717	POSCO	4,627	제일모직	-6,075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4,055	출판,매체복제	-28,102
제약	2,756	반도체	-2,102
사업지원	1,080	오락,문화	-1,218
SK브로드밴드	4,052	에스엠	-27,482
위메이드	1,703	실리콘웍스	-2,328
메디톡스	1,608	JCE	-2,310
하나투어	1,272	이엘케이	-1,400
파트론	1,261	파라다이스	-1,35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602	출판,매체복제	-12,124
화학	1,212	제약	-2,981
인터넷	991	오락,문화	-1,463
멜파스	2,138	에스엠	-12,397
다음	991	씨젠	-2,292
모두투어	863	파라다이스	-1,471
덕산하이메탈	739	SK브로드밴드	-1,327
STS반도체	732	게임빌	-1,11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565	출판,매체복제	-773
제약	470	음식료,담배	-492
컴퓨터서비스	454	디지털컨텐츠	-340
에스텍파마	621	에스엠	-802
플랜티넷	569	매일유업	-492
에이블씨엔씨	462	서울반도체	-295
실리콘웍스	252	위메이드	-274
성광벤드	198	파라다이스	-23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897	출판,매체복제	-14,784
금속	1,687	IT부품	-4,573
디지털컨텐츠	807	오락,문화	-789
메디톡스	995	에스엠	-14,762
덕산하이메탈	803	이엘케이	-1,642
성광벤드	730	실리콘웍스	-1,493
코오롱생명과학	701	인터플렉스	-1,349
플랜티넷	603	이녹스	-1,15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5,721	출판,매체복제	-98,648
금속	2,659	오락,문화	-4,651
방송서비스	1,578	반도체	-4,117
SK브로드밴드	5,678	에스엠	-98,468
위메이드	2,433	실리콘웍스	-4,633
멜파스	2,186	파라다이스	-4,633
성광벤드	1,870	인터플렉스	-3,796
덕산하이메탈	1,826	이엘케이	-3,478
CJ오쇼핑	1,678	씨젠	-2,961
파트론	1,560	JCE	-2,724
메디톡스	1,491	네패스	-1,886
STS반도체	1,053	서울반도체	-1,393
플랜티넷	1,005	컴투스	-1,37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5,916	반도체	-7,796
도매	2,585	IT부품	-5,043
음식료,담배	1,066	화학	-3,095
파라다이스	6,083	메디톡스	-4,303
씨티씨바이오	2,914	실리콘웍스	-2,232
셀트리온	2,652	루멘스	-2,036
게임빌	1,404	옵트론텍	-2,032
매일유업	957	파트론	-1,647
미래나노텍	929	위메이드	-1,558
오스템임플란트	797	에이블씨엔씨	-1,443
이엘케이	683	바이오랜드	-1,296
제이브이엠	543	컴투스	-1,182
포스코 ICT	503	하나투어	-1,13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29 일	한라공조	14 일
효성	23 일	CJ제일제당	10 일
TIGER 국채3	14 일	삼영전자	8 일
SK	13 일	신도리코	6 일
남양유업	13 일	효성	5 일
SK텔레콤	13 일	한화케미칼	5 일
아세아시멘트	12 일	한국전력	5 일
하나금융지주	11 일	S&T중공업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2 일	한국토지신탁	7 일
메가스터디	10 일	게임하이	7 일
서부T&D	8 일	다음	5 일
시그네틱스	8 일	SDN	5 일
SK브로드밴드	8 일	메가스터디	4 일
네오위즈게임즈	8 일	GS홈쇼핑	3 일
주성엔지니어링	7 일	SK브로드밴드	3 일
루멘스	7 일	파라다이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06,181	KT	39,164
LG전자	103,988	한국전력	22,902
KODEX 200	95,276	현대해상	15,344
현대차	71,354	엔씨소프트	15,322
KODEX 인버스	61,667	LG화학우	13,527
SK텔레콤	52,290	기아차	11,870
삼성전기	50,472	삼성SDI	11,796
SK	29,228	삼성전기	8,78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인터파크	51,122	다음	9,424
SK브로드밴드	22,758	솔브레인	5,978
컴투스	11,038	파트론	4,821
멜파스	10,047	플렉스컴	4,696
서울반도체	8,506	에이블씨엔씨	3,870
하나투어	6,476	이엘케이	3,699
포스코엡텍	5,844	에스엠	3,466
CJ오쇼핑	4,745	파라다이스	2,93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14,680	8,581 23,261
전기가스업		4,070	4,963 9,033
의약품		3,718	2,766 6,484
기아차		43,479	10,130 53,608
KT		3,742	12,294 16,036
삼성전기		7,635	5,675 13,310
삼성SDI		205	11,757 11,961
LG유플러스		3,772	3,711 7,484
한국전력		2,333	4,674 7,007
대우증권		2,577	2,382 4,960
삼성중공업		2,453	783 3,236
효성		1,194	1,676 2,870
아모레퍼시픽		2,070	647 2,71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서비스		5,721	469 6,191
방송서비스		1,578	168 1,746
의료,정밀기기		856	740 1,596
SK브로드밴드		5,678	403 6,081
셀트리온		685	2,652 3,337
씨티씨바이오		228	2,914 3,142
게임빌		755	1,404 2,159
오스템임플란트		440	797 1,237
플랜티넷		1,005	71 1,076
다음		908	91 1,000
이라이콤		548	400 948
조이맥스		635	243 877
에스텍파마		609	162 77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26 일	하나금융지주	21 일	동국산업	16 일	덕산하이메탈	17 일
두산중공업	25 일	SK텔레콤	20 일	네패스	11 일	하나투어	11 일
삼성카드	15 일	대한제분	12 일	태광	8 일	KCC건설	7 일
현대중공업	12 일	KODEX 보험	12 일	포스코 ICT	5 일	오성엘에스티	7 일
STX팬오션	10 일	삼성화재	11 일	파트론	5 일	실리콘웍스	7 일
두산인프라코어	10 일	동양메이저	11 일	파라다이스	4 일	서부T&D	5 일
마이다스	10 일	대교	11 일	인터플렉스	4 일	동서	5 일
커버드콜	10 일	남양유업	10 일	인터파크	3 일	심텍	5 일
현대건설	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52,504	삼성전자	-242,351	에스엠	-105,930	셀트리온	-12,606
엔씨소프트	-47,560	KODEX 200	-109,628	태광	-15,556	하나투어	-6,622
현대중공업	-37,935	GS건설	-47,840	이엘케이	-12,372	태광	-5,284
삼성카드	-34,371	SK텔레콤	-46,276	파라다이스	-11,185	컴투스	-4,624
금호석유	-31,554	LG전자	-29,199	다음	-10,229	성광벤드	-4,463
두산중공업	-26,784	삼성화재	-28,104	씨젠	-9,636	한국사이버결제	-4,340
대우조선해양	-24,865	하나금융지주	-26,433	인터플렉스	-6,193	메디톡스	-3,392
GS건설	-23,416	LG	-20,183	성광벤드	-6,020	실리콘웍스	-3,14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4,530	-10,219	-14,749	출판,매체복제	-98,648	-505	-99,153
유통업	-3,937	-9,441	-13,378	반도체	-4,117	-7,796	-11,913
건설업	-3,013	-6,962	-9,975	IT부품	-1,500	-5,043	-6,543
KODEX 레버리지	-27,192	-8,349	-35,542	에스엠	-98,468	-90	-98,557
GS건설	-4,717	-3,139	-7,857	실리콘웍스	-4,633	-2,232	-6,865
삼성카드	-5,080	-2,116	-7,196	인터플렉스	-3,796	-223	-4,019
호남석유	-984	-4,827	-5,810	씨젠	-2,961	-539	-3,499
KB금융	-652	-4,676	-5,328	컴투스	-1,370	-1,182	-2,552
대우인터네셔널	-1,833	-2,790	-4,623	옵트론텍	-304	-2,032	-2,336
두산중공업	-3,155	-1,255	-4,410	네패스	-1,886	-113	-1,998
대우조선해양	-1,475	-2,523	-3,998	서울반도체	-1,393	-373	-1,766
기업은행	-2,115	-1,408	-3,523	하나투어	-89	-1,132	-1,221
우리금융	-2,665	-674	-3,339	진성티씨씨	-968	-189	-1,15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240	19,581	
KODEX 200	363	8,887	
삼성전자	6	8,207	
NHN	32	7,674	
엔씨소프트	37	5,924	
SK하이닉스	190	4,996	
현대차	19	3,935	
LG화학	13	3,79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1	2,524	
에이블씨엔씨	16	1,409	
컴투스	18	1,173	
메디투스	13	1,062	
씨젠	13	912	
이지바이오	135	475	
플렉스컴	28	474	
포스코엡텍	36	410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66	5,412,175	
LG전자	43,243	3,502,705	
POSCO	9,547	3,035,813	
OCI	9,558	1,452,835	
현대차	5,911	1,250,267	
SK하이닉스	31,457	822,591	
NHN	3,389	816,729	
현대모비스	2,269	609,34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8,188	714,558	
서울반도체	5,903	135,467	
에스엠	1,575	78,908	
게임빌	510	67,077	
덕산하이메탈	2,718	49,473	
위메이드	942	46,842	
에이블씨엔씨	470	40,485	
다음	454	38,27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의약품	1,271	금융업	-8,882
음식료품	1,126	운수장비	-3,962
철강및금속	1,126	기계	-2,807
넥센타이어	923	두산인프라코어	-2,621
SG세계물산	887	신한지주	-2,465
동국제강	838	KB금융	-2,085
하이트진로	807	우리금융	-1,826
현대상선	729	기아차	-1,686
LG전자우	694	SK하이닉스	-1,469
대한전선	660	하나금융지주	-1,447
케이피케미칼	499	삼성중공업	-1,277
신성통상	422	웅진홀딩스	-962
제일기획	405	LG디스플레이	-91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200	전문기술	-96
IT부품	1,070	금속광업	-78
도매	899	방송서비스	-10
주성엔지니어링	582	서울반도체	-328
서희건설	439	대화제약	-312
라이브플렉스	379	인터파크	-191
원익IPS	357	인터플렉스	-174
차이나그레이트	349	큐로컴	-147
에스넷	248	차바이오앤	-126
보성파워텍	236	파트론	-122
에스코넥	193	덕산하이메탈	-101
동서	183	씨엔케이인터	-78
플렉스컴	177	오성엘에스티	-7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외국인	13,094.9	-583.0	-624.2	-156.6	-2.0	-69.2	-257.9	-138.6
기관계	2,499.0	443.6	545.7	104.8	-17.5	103.8	182.6	172.0
(투신)	-4,991.6	101.2	156.9	-30.5	-41.1	69.8	51.1	107.5
(연기금)	2,870.5	494.7	278.0	35.1	54.8	-3.5	71.0	120.5
(은행)	467.8	50.1	22.1	8.4	4.1	5.8	7.1	-3.4
(보험)	2,624.0	61.5	47.8	-13.2	-7.3	7.9	46.7	13.7
개인	-10,729.3	347.9	-5.4	36.9	9.6	-45.0	31.6	-38.6
기타	-4,864.7	-208.4	83.9	14.9	9.9	10.4	43.6	5.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09(금)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04.41	1,900.87	1,889.70	1,894.04	1,870.72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312.7	17241.8	16950.8	16962.3	17841.0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89.9	-70.9	-291.0	11.5	878.7
(회전율)	52.6	51.5	34.2	37.4	33.0	35.7	41.2	34.4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362.9	212.7	-124.4	8.9	927.7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59.0	4495.6	4519.1	4515.4	4485.7
미수금	240.2	192.3	187.7	101.2	164.1	141.2	142.7	149.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09(금)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전체 주식형	95,506	-6,933	-53	37	28	92	-21	-116
(ex. ETF)		-9,354	-277	7	14	50	10	-180
국내 주식형	68,593	-3,795	104	41	43	104	-13	-102
(ex. ETF)		-6,217	-124	8	29	62	18	-166
해외 주식형	26,912	-3,138	-157	-4	-15	-12	-8	-14
(ex. ETF)		-3,137	-153	-1	-15	-12	-8	-14
주식 혼합형	10,346	-1,515	-37	3	-2	-17	-6	-4
채권 혼합형	19,312	1,286	511	172	-3	0	1	109
채권형	45,953	1,539	775	45	19	0	35	24
MMF	77,009	22,446	2,161	-818	-1,058	1,032	596	40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한 국	11,706	-536	-1,258	119	-2	-64	-237	-127
대 만	1,489	-256	-685	148	-313	-60	-55	-
인 도	18,685	585	-347	137	-	-	-	-
인도네시아	1,704	-315	-400	-71	-68	-18	-	-
태국	1,329	-219	-366	-17	-128	-51	-43	-
남아공	-850	420	-122	134	-	-46	-114	-
필리핀	2,032	59	12	9	8	1	-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09(금)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회사채 (AA-)	4.21	3.31	3.31	3.30	3.31	3.31	3.30
회사채 (BBB-)	10.01	8.70	8.70	8.68	8.69	8.69	8.68
국고채 (3년)	3.34	2.79	2.79	2.78	2.79	2.78	2.77
국고채 (5년)	3.46	2.86	2.86	2.84	2.85	2.85	2.84
국고채 (10년)	3.79	2.98	2.98	2.96	2.97	2.97	2.96
미 국채 (10년)	1.88	1.61	1.61	1.59	1.59	1.59	-
일 국채 (10년)	0.99	0.74	0.74	0.74	0.75	0.74	-
원/달러	1,151.80	1,087.60	1,088.60	1,089.90	1,084.90	1,086.70	1,092.20
원/엔	1,492.00	1,368.00	1,371.00	1,376.00	1,361.00	1,345.00	1,348.00
엔/달러	77.24	79.52	79.44	79.25	79.74	80.80	81.03
달러/유로	1.29	1.27	1.27	1.26	1.27	1.27	1.27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94	1.92	1.92	1.91	1.90	-
CRB 지수	305.30	292.22	292.15	292.16	293.92	292.84	-
LME 지수	3,306.0	3,245.4	3,285.8	3,300.9	3,290.5	3,289.7	-
BDI	1,738	940	965	985	985	1,024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6.05	86.05	85.63	85.35	85.45	-
금 (달러/온스)	1,566.80	1,730.90	1,730.90	1,724.80	1,730.10	1,713.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12일	248.18	249.25	0.60	1.07	0.34	143,117	97,772	1,438
11월 13일	246.90	247.40	0.58	0.50	0.40	183,903	100,181	2,409
11월 14일	247.80	248.30	0.56	0.50	0.49	168,092	98,703	-1,478
11월 15일	244.64	244.40	0.53	-0.24	0.37	175,621	103,266	4,563
11월 16일	243.45	243.65	0.53	0.20	0.21	159,698	106,380	3,11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12일	1,089	32	-1,103	-547	793	-259	-162	-1
11월 13일	-396	-1,046	1,133	972	622	-169	-311	1
11월 14일	691	-20	-566	-442	1,255	136	-77	-1
11월 15일	-3,557	1,629	2,088	3,077	-1,399	62	142	1
11월 16일	-2,206	1,387	753	-109	645	-193	-229	0
누적포지션	-23,634	7,234	16,352	5,476	9,267	-1,354	-1,297	4,29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12일	499	555	56	462	446	-16	37	109	71	6,239	9,758
11월 13일	525	567	42	471	519	48	54	48	-6	6,237	9,747
11월 14일	745	784	39	717	607	-110	28	177	148	6,183	9,836
11월 15일	811	686	-124	738	609	-129	73	77	5	6,189	9,841
11월 16일	698	689	-9	574	652	78	124	3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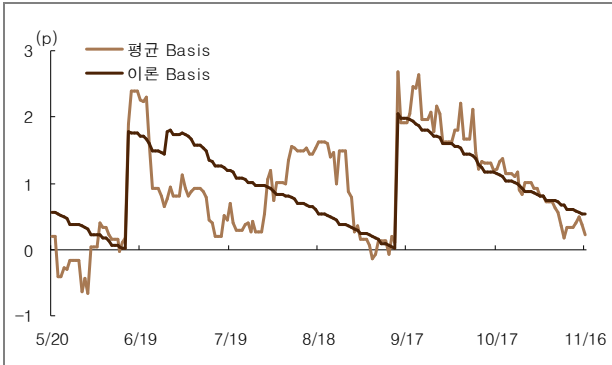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5.42	4,423	79,998	0.49	257.50	14.20	32	9	16.95
15.48	5,055	105,666	0.79	255.00	12.15	85	-4	17.52
15.45	3,314	100,723	1.21	252.50	10.05	157	-11	17.04
15.46	1,938	103,142	1.80	250.00	8.20	1,938	58	17.07
15.68	1,112	40,178	2.64	247.50	6.55	4,222	214	17.16
15.49	978	12,858	3.60	245.00	5.05	10,420	258	17.04
15.88	589	4,248	4.95	242.50	3.80	11,187	190	17.05
16.37	307	2,152	6.55	240.00	2.89	85,554	1,495	17.55
16.19	15	130	8.20	237.50	2.15	76,405	562	17.97
16.49	17	39	10.15	235.00	1.56	83,797	229	18.32
16.46	0	7	12.20	232.50	1.15	64,423	-810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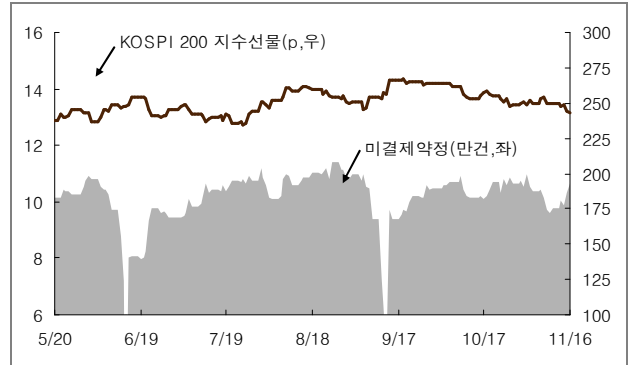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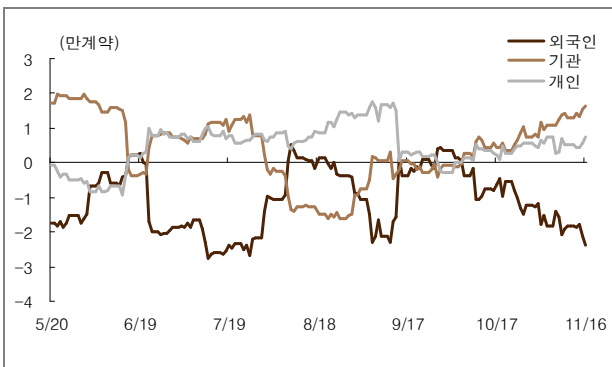
- 평균 Basis: 0.21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
- 이론 Basis: 0.53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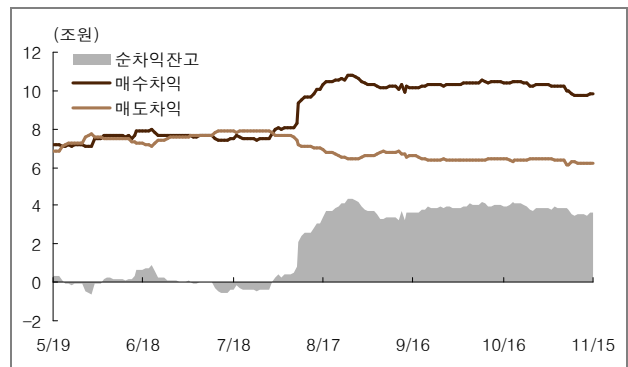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114 계약 증가한 106,380 계약
- 선물가격(243.65): 전 거래일 대비 0.7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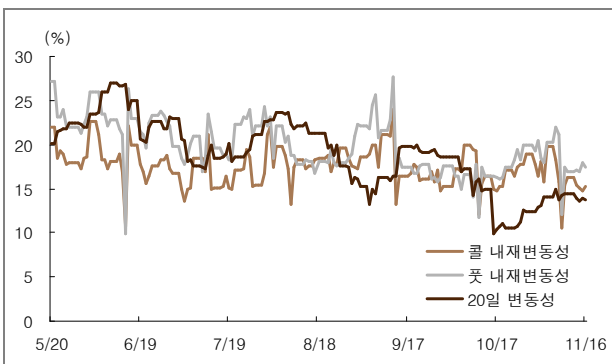
- 외국인: 2,206 계약 순매도
- 기관: 753 계약 순매수 / 개인: 1,387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865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775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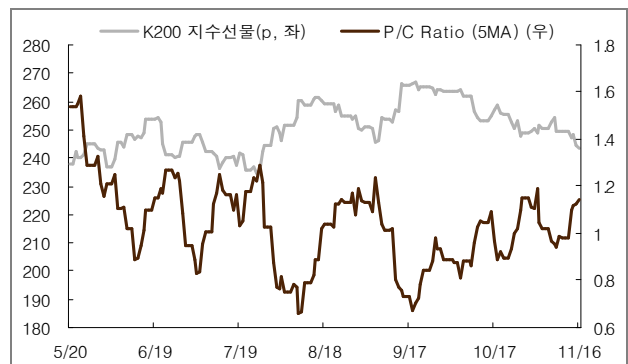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2% / 풋 17.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3.67%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5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유럽> (11/11) 그리스 2013년 예산안 의회 표결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 中> (11/10) 10월 무역수지 (\$31.99B, \$27.30B, \$27.67B) (11/10) 10월 수출 YoY (11.6%, 10.0%, 9.9%) (11/10) 10월 수입 YoY (2.4%, 3.4%, 2.4%) 10월 신규 위안 대출 (505.2B, 590.0B, 623.2B) 10월 통화공급 M2 YoY (14.1%, 14.5%, 14.8%) 日> 3분기 GDP QoQ 속보치 (-0.9%, -0.9%, 0.2%)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1, 93.0, 92.8) 하원 개회 유럽> 독일 11월 ZEW 현황 조사치 (5.4, 8.0, 10.0) 독일 11월 ZEW 전망 조사치 (-15.7, -10.0, -11.5)	韓> 10월 실업률 (3.0%, 3.1%, 3.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2.6%, n/a, -5.0%)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3%, 2.6%, 2.1%) 10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3%, -0.2%, 1.1%) 9월 기업제고 MoM (0.7%, 0.6%, 0.6%)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2.5%, -2.0%, 0.6%) 中> 제18차 당대회 폐막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5.2%, n/a, -1.9%)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6.4%, n/a, -2.4%)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3.9만, 37.5만, 35.5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2%, 2.1%, 2.0%)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5.22, -8.00, -6.16)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10.7, 2.0, 5.7)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2.5%, 2.5%, 2.5%) 3분기 유로권 GDP YoY 속보치 (-0.6%, -0.6%, -0.5%)	美> 10월 산업생산 YoY (n/a, 0.2%, 0.4%) 오바마-의회 지도부 회동 유럽> 9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9.5B, 9.9B) 中> 10월 실질 FDI (미확정) (n/a, 1.0%, -6.8%)
19	20	21	22	23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0.2%) 10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0.8%)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1, 41) 10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0.2%, -1.7%) 실적발표> 韓 한국가스공사 美 로위스, 타이슨푸드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3.7%, 15.0%) 10월 건축허가 MoM (n/a, -2.8%, 11.6%)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日> BOJ 정책금리 (n/a, 0.10%, 0.10%) 실적발표> 美 HP, 베스트바이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2.6%)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n/a, 0.1%, 0.6%) 日> 10월 수출 YoY (n/a, -4.9%, -10.3%) 10월 수입 YoY (n/a, -3.2%, 4.1%) 실적발표> 美 세일즈포스닷컴*, 디어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9.5만, 43.9만)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속보치 (n/a, -25.5, -25.7)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n/a, 45.5, 45.4)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n/a, 46.0, 46.0)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n/a, n/a, 49.5)	美>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발표> 韓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오위즈 게임즈
26	27	28	29	30
韓>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유럽> (11/25) 스페인 카탈루냐 조기 총선	韓>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美> 10월 내구재 주문 MoM 9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11월 소비자대지수 9월 주택가격지수 MoM 연준 베이지북 공개 中> 10월 선행지수 (미확정)	韓> 10월 경상수지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韓> 12월 BSI 제조업 12월 BSI 비제조업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신규주택매매 MoM 10월 미경주주택매매 MoM	韓> 10월 산업생산 YoY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美> 10월 개인소득 MoM 10월 개인소비지수 MoM 유럽> 10월 유로권 실업률 日> 10월 실업률 10월 국내 CPI YoY 10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